

2014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 신입학  
**논술고사 문제지 (2교시)**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금융학부]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⑤ **검정색 필기구(연필, 볼펜 또는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그 이외 색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 1** 제시문 (나), (다), (라)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를 논하시오. (800 ± 80자, 40점)

**(가)** 근대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보와 발전을 기획함으로써 출발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도 이와 같은 기획의 산물이다. 도시공간은 자연에 의해서 생성된 곡선의 구도를 모두 직선화하는 과정에 의해 탄생한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빌딩들은 도시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도시공간의 구조는 삶의 운행 속도를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근대의 진보와 발전 기획은 수많은 사물들의 가치를 기능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 과정은 기능성과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분리수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제되었거나 분리수거된 것들은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됨으로써 주변 혹은 부수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시 공간의 특성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나 지향을 바탕으로 이룩된다. 즉 도시가 기능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재편된 공간이라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 또한 기능성과 효율성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나)** 계절은 바뀌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월의 빠름을 덧없이한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엔트로피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특히 일상생활의 엔트로피가 아주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시대의 그 누구든 낭비할 시간을 가지고 있겠는가?

교통 체증, 도시의 거대화 때문에 길거리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영양가 없는 오락성 또는 폭로성 정보로 가득 찬 신문은 점점 두꺼워지고, 텔레비전은 한가한 저녁 시간을 사정없이 공략한다. 촌음을 아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도 보아야 하고, 밤늦게 자는 시간을 아껴 월드컵 축구를 보아야 한다.

누구든 맹목적 분주함과 싸구려 정보들로 자기 일상의 엔트로피를 극대화시켜야 마음이 편하다. 심심한 시간, 비어 있는 시간이 곧 불안이요 소외인 곳에 사려 깊은 문화가 서식할 여지가 있는가?

누가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외면하고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재독 삼독하고 있을 것이며, 누가 자기 전문 분야의 잡지를 볼 시간도 없는데 문학 계간지를 꼼꼼히 읽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 또는 문화는 심심함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창조는 심심한 시간에서 나오는 것일 것이다. 순간적 황홀이 넘치는 이 세계의 현혹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스스로 권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 길은 원칙적으로 사람과 물품이 이동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모범답안이다. 그렇다고 길이 그렇게 꼭 한 가지 목적만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동네 꼬마들이 길을 막고 공을 찬다면 길은 순식간에 작은 운동장이 되기도 한다.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시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복잡한 인간 잡사가 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길은 곧게 뻗은 것보다 오히려 구불구불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쟁하니 달려야 하는 자동차를 위해서는 곧은길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론가 달려가야 할 자세만으로 도시에서 살지는 않는다. 적어도 보행인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폭도 변하면서 이리저리 굽은 도로가 더 재미있을 것이다. 골목 어귀마다 달리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은 숫자로 계량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하는 꼬마가 30년 뒤에 반추해 볼 모습으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 꼬마의 기억에는 35-2번지보다 감나무 집이 더 소중히 들어있을 것이다.

**(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기능적 합리성에 부응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나 규범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한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체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특정 시점 t에서 형성된 제도나 규범이 일정 시기 후인 t+1 시점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선택과 변화 방향을 제약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제도나 규범이 그 환경의 영향력이 사라진 미래의 시점에서 그 기능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간 행동의 선택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나 규범은 t+1 시점에서 제기되는 체제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t+1 시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 즉 역사 발전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경로가 선택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다른 경로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거래비용 즉 변화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인간의 의도된 선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경로의존성은 예측기능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고 인정한다.

결국 경로의존성은 환경변화와 인간의 합리적 선택 간의 괴리, 최적의 결과와 실제 결과와의 괴리를 인정함으로써, 기능적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역사적 과정의 단일한 결정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는 우연성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각 문항에 답하십시오.

(1000 ± 100자, 60점)

**(가)**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란, 무역장벽을 비롯한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은 동일한 통화기준으로 표시될 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 뉴욕에서 150달러에 판매되는 가방은 서울에서  $150 \times 1,000 = 150,000$ 원에 판매된다는 것이다. 만약 두 국가에서 동일한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면 사람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국가에서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인 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판매자가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고,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시간이 경과하면 두 국가 간에는 가격 차이가 없어질 것이며,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발, 자동차 정비와 같은 비교역재는 물론 원유, TV, 핸드폰 등 교역재의 경우에도 무역장벽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가마다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동일한 제품의 A국 생산자가격을  $P^A$ , B국 생산자가격을  $P^B$ , 환율(B국 통화 1단위의 A국 통화 가치)을  $E$ 라고 하고, 무역장벽과 같은 국제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국 화폐로 표시한 무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A국이 B국으로 수출할 경우:  $E \times P^B - P^A$
- B국이 A국으로 수출할 경우:  $P^A - E \times P^B$

반면 무역장벽과 같은 국제거래비용이 존재한다면 수출국은 생산자가격의 일정부분만큼 국제거래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위당 판매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거래비용으로 생산자가격의 30%를 지불해야 한다면 국제거래비용의 비중( $\alpha$ )은 0.3으로 표시되며, 그만큼 단위당 판매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한편 국제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무역의 이득은 다음과 같다.

- A국이 B국으로 수출할 경우:  $(1 - \alpha^B)(E \times P^B) - P^A$
- B국이 A국으로 수출할 경우:  $(1 - \alpha^A)P^A - (E \times P^B)$

여기서  $\alpha^A$ 는 B국이 A국으로 수출할 때 소요되는 국제거래비용의 비중,  $\alpha^B$ 는 A국이 B국으로 수출할 때 소요되는 국제거래비용의 비중을 말한다. 이때 A국은 무역의 이득이 0보다 클 경우, 즉  $(1 - \alpha^B)(E \times P^B) - P^A > 0$ 일 때 B국으로 수출할 것이며, B국은  $(1 - \alpha^A)P^A - (E \times P^B) > 0$ 일 때 A국으로 수출할 것이다.

**(다)** 통계학에서 어떤 확률변수의 표준편차는 그 확률변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지를 가늠하는 수치이다. 즉 표준편차는 표본의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만약 표본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표준편차 값이 작을 반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면 표준편차 값이 크게 나타난다. 표본의 값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표준편차 값은 0이 될 것이다. 표준편차는 소득, 가격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지역 간 또는 경제주체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준편차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 N은 표본의 크기,  $x_i$ 는 표본의 값,  $\bar{x}$ 는 표본의 평균을 의미한다.

- 표준편차 =  $\sqrt{\frac{1}{N-1} \sum_{i=1}^N (x_i - \bar{x})^2}$

(라) <표 1>은 와인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단순화된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A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자국은 물론 와인 소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B국과 C국으로도 수출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와인 생산과 유통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든 가격은 동일 통화로 표시되었다.

<표 1> A국 생산 와인의 국가별(A, B, C) 비용구조 및 가격 (단위: 개당 달러표시 가격)

항목		A국	B국	C국	국가 간 표준편차
생산자가격	생산비 및 판매마진	20	28	24	㉠
	국제운송료	0	4	2	㉡
	수입관세	0	6	3	㉢
국내 유통마진		8	16	12	㉣
합계: 소비자가격		28	54	41	㉤

(문항 1) 제시문 (다)의 표준편차 공식을 이용하여 <표 1>의 각 항목에 대한 국가 간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그 경제적 의미를 일물일가의 법칙과 연관하여 설명하시오.

(문항 2) <표 1>에 따르면 A국 생산 와인의 소비자가격은 C국보다 B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A국과 B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두 국가 사이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반면, A국과 C국 사이에는 여전히 관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국의 와인 소비자가격은 C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산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문항 3) 이제 FTA 체결 이후 관세 철폐는 물론 기술협력이 강화되어 A국의 선진 와인 제조기술이 B국으로 전수된 결과 B국도 A국과 동일한 수준의 와인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단 생산과 유통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시문 (나)의 방법론과 <표 2>의 수치를 이용하여 다음 문항에 답하시오.

<표 2> FTA 이후 B국 생산 와인의 국가별(A, B) 비용구조 및 가격 (단위: 개당 달러표시 가격)

항목		A국	B국
생산자가격	생산비 및 판매마진	22	21
	국제운송료	4	0
	수입관세	0	0
국내 유통마진		2	8
합계: 소비자가격		28	29

(문항 3-1) B국의 생산자가 A국으로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alpha$ 를 계산하시오.

(문항 3-2) B국의 생산자가 A국으로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무역의 이득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B국이 A국으로 수출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끝>